

핸드폰 부럽지 않아

이찬희

나는 핸드폰이 없다.

6학년인 바로 위 언니도 없다. 중학교 3학년인 오빠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고 3인 첫째 언니와 고 2인 둘째 언니도 모두 중학생이 되어서야 핸드폰이 생겼다. 아마 바로 위 언니도 나도 중학생이나 되어야 생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 막막하다. 나도 핸드폰이 갖고 싶기 때문이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핸드폰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 모두 뛰어노는 줄 아는데 아니다. 놀이터에서 모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모두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 꼬맹이들뿐이다. 초등학생들은 모두 앉아 게임을 한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특히 정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정자가 아파트랑 가까워서 1층의 와이파이기가 터지기 때문이다.

학원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핸드폰을 꺼낸다. 선생님이 학원에

서 핸드폰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복도에 나와서 한다. 나도 가끔 화장실에 갔다가 그런 아이들을 보는데 수업 시간보다 눈이 더 초롱초롱 빛난다.

가끔 언니 오빠의 핸드폰을 빌려서 나도 게임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짜증이 난다. 안 그래도 오 남매의 막내라 심부름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핸드폰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대놓고 부려 먹는 언니 오빠가 너무 얄밉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즐거움을 찾기로 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언니 오빠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었고 엄마도 캐릭터를 잘 그린다고 놀라워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하면 색깔 볼펜으로 그림을 그렸다. 가끔 친구들에게 그려 주었는데 친구들이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서로 자기를 그려 달라고 해서 더 기분이 좋았다.

나는 책도 읽기 시작했다. 책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재밌었다. 나는 조선 시대 김득신 시인의 이야기인 『책 씻는 날』, 생태 도시 이야기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과학 이야기 『알고 보니 내 생활이 다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번쩍번쩍 들 수 있게 되었다. 3학년 때는 과학 분야 책에 빠졌었다. 엄마가 전집을 얻어 왔는데 사진이랑 그림이 잔뜩 있는 과학책이었다. 그래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3학년 말 교육청 영재 교육원에서 수·과학 융합 영재에 합격했다. 영재원 시험에 내가 과학책에서 재밌게 본 분야가 나왔었다. 나는 과학책을 읽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수학 학원 쉬는 시간에는 문제를 더 풀었다. 나는 학원에서 가장 못하는 반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나는 한 문제라도 더 풀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는 중간 성적으로 꺾춤 뛰었다. 뭔가 보람차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핸드폰은 재밌는 물건인 것은 맞다. 동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하지만 핸드폰만 보면 한 가지 즐거움밖에 모른다. 작고 네모난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나는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핸드폰 대신 주변을 돌아보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요즘 동시도 쓰고 있다. 동시집을 읽으며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동시집도 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신나는 일이 많다.

핸드폰이라는 작은 것을 버리니 세상이라는 큰 것이 다가왔다. 기분이 좋다.